



위수령

1965년 4월 한일협정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반대데모가 폭발하였다. 그 결과 휴교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8월 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시작되었고 더욱 격렬해졌다. 경찰병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교에서 추방되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

내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에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5년 전 역사 학자들을 중심으로 안중근 전집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중근 의사 의거와 순국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금)에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1985년부터 성심여자대학교(현재 가톨릭대학교와 통합)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무>라는 주제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는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시각과 신선함을 배웠고 제가 학생들에게 도전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일을 맞아 저는 <안중근 의사의 삶과 교훈>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 공판기록 등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토록 과제를 주고 이를 1학기 학점에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숙제를 싫어하지만 학점 때문에 제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중 큰 공통점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안 의사에 대해서는 어린시절 교과 과정을 통해 일본의 침략자 이등박문을 사살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서전을 읽고는 그분의 투철한 신념, 정의심, 교육열, 사상, 체계적 이론 등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선각자, 스승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숭한 선현들이 있습니다만 안중근 의사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되새기고 길잡이로 모셔야 할 스승이며 귀감입니다. 우리는 대한국인(大韓國人)이라는 안 의사의 친필과 함께 그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의 잘린 모습이 선명한 손바닥 인장의 글귀를 대하면서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안 의사는 1909년 연추의 김씨 댁 여관에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의 결의를 다지며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고 끝내 침략자 이등박문을 처단키 위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그를 주살(誅殺)했습니다.

그리고 만 5개월 동안 감옥에서 자서전 『안응칠역사』를 집필한 뒤, 서문, 전감, 현상, 복선, 문답 등 5장으로 구성된 『동양평화론』의 서문과 전감을 서술하고 나머지 3개장은 완성하지 못한 채 순국했습니다.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무엇보다도 안 의사는 정열과 정의의 청년입니다. 그는 1898년 어느 날 서울을 방문하던 때에 한국인이 타고 가는 말을 빼앗아 가는 일본인의 만행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곧 달려가 일본인의 멱살을 잡고 권총을 들이대며 꾸짖고 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있던 주변 일본인들을 두렵게 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용기와 힘을 준 참으로 용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 앞에서 분노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청년 안중근, 바로 그가 침략자 이등박문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는 검사 앞에서 그리고 판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공존공생의 책무를 역설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기공식 때 이기웅 이사장은 1990년대 이 큰일을 이루기 위해 너무 힘들고 포기 할 정도의 위기 직전에 안중근 의사에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안 의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의사께서 “네가 이 출판단지사업을 꼭 해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 있게 “예, 제가 꼭 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의사께서는 다시 “그렇다면, 너는 과

연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는 물음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굳센 마음으로 “예, 안 의사님, 저는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의사께서 “그래, 그렇다면 해라!” 하고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기웅 이사장은 목숨을 걸고 파주출판단지 사업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단지에 안 의사의 흉상을 모셨습니다. 또한 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매일 독서를 하지 않으면 그 입에 가시가 돋는다.) 는 안 의사의 친필을 출판단지의 표어로 삼고 안중근 의사를 파주출판단지 수호성인(守護聖人)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안 의사의 독립정신이 바로 민주화정신의 뿌리임을 새삼 되새기면서 안 의사 의거 100주년을 앞둔 올해 우리 모두 제 2의 민주화운동을 펼쳐야 할 시대적 사명을 되새깁니다.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02 책머리에
안중근위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과
민중신학의 산실 한빛교회 | 이창연



12 특별기고 1
기억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 | 심성보

18 특별기고 2
민주주의 교육은 국가 성장의 힘이다
독일 정치교육 현장 탐방기 | 주은경

24 특별기고 3

민주주의 국민의식 조사

30 사료이야기

아름다운 청년과 대학생 친구 하나 | 어수갑

34 사업회 소식

국민 3명 중 2명,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민주인사 29인의 생생한 구술기록 등

38 문화초대석

소외된 자와 노동자에게 희망의 노래
거리 공연 펼치는 노동가수 박 준 | 김미영

42 그곳에 희망이 있다

인문학 책 읽기 운동으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인서점' | 황석선

46 게시판

48 독자마당



30



38



42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8년 11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김종철,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파인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